

土種 홍화씨
임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임양산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년간의 재배를 통한
임양산 종내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 김창본거사는 <화엄경>을 주로 제본한다. 약 2천여장을 묶어냈지만 지금도 작업장에 들어설 때면 두렵다고 한다. 2004년 남짓한 그의 작업장에는 팔만대장경들이 영인된 한지와 완성된 책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 전법륜인을 짓고 있는 경기도 안성 굴암사 마애여래좌상.

마애불을 찾아서

굴암사 마애여래 좌상

크게 늘어난 양 귀는 관동형

통견법에 무늬 뚜렷하게 조각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에 있는 이 마애여래 좌상은 거대한 화강암의 암벽에 조각한 불상이다. 암벽 동쪽에 양각된 마애여래 좌상은 특이한 원형의 두광과 신광을 갖추고 있으나 약 30년전 지은 보호간물로 인하여 그 일부가 가려져 있다. 소발의 머리위에는 육계가 있으며 상호는 일만하고 양미안(兩眉眼) 비량(鼻量) 구순이 정제되었고 크게 늘어난 양 귀는 관동형이다. 목에는 삼도가 있고 법의는 통견으로 의문(衣紋)이 뚜렷하게 조각되어 있다. 오른 손을 가슴에 들어 수인은 엄지와 검지로 전법륜인(轉法輪印)을 지었으며 왼손은 무릎에서 약간 들고 있다. 양 무릎은 결가부좌하고 있으며 의문은 양 팔과 무릎에서 흔들리고 있다. 앉은 키 높이 3.5m로 고려초기의 우수한 작품이다. 향토유적 제11호

글·사진 = 불자포교사진연합회 (011-337-7312)

산문박의 **대장경과 함께 40여년 한장본가 김창본 씨**

“경판 찍어내는 일 번뇌 떨치는 수행”

“그러저러 먹고 살 만합니다. 단순히 돈 벌이라고 생각했으면 이 일을 못했을 겁니다. 인생을 바치며 하는 일이지...” <화엄경>을 제본하기 위해 자리를 틀고 앉으며 내뱉은 첫마디였다. 무표정에 투박한 경상도 특유의 말투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정감 있게 다가온다. 1분 여만에 1권의 제본을 마친 그는 '정통 인쇄 문화 열이기 40년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김창본 거사가 사는 경남 함천군 가야면 해인사 신동은 팔만대장경을 소장하고 있는 법보종찰 해인사가 있는 고장이다. 김씨가 대장경을 한장본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21살 때, 해인사에서 학인들에게 경전을 가르치던 아버지(김설재)로부터 작업을 이어받은 것이다.

“당시 스님 신분으로 학인들을 가르치던 아버지는 경전의 교재를 만들기 위해 경판을 찍어 책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해인사, 감화 정동사, 서울 영은사, 수원 용주사 등을 찾아 경판을 찍고 제본을 했지요. 이렇게 시작한 것이 가업이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찍어낸 '화엄경'

김창본 거사는 목판에 찍을 할때 닥종이를 대고 찍는 것이 전문이다. 부인 주영자 보살도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찍어낸 경전은 <화엄경>으로 약 2천여 절(16만여권)에 이른다. 이밖에도 <법화경> <화엄현담> <사교> 등 강원에서 사용하는 경전들을 주로 찍으로 뒀다.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는 어쩔 수 없이 영인본을 만들고 있다. 경판 인출이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어 영인 인쇄하는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최근에 송광사에서 <법화경> 목판을 내줘 전통 방법으로 찍기도 했는데, 이제는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다. 경판 소장 사람들이 훼손을 이유로 꺼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거사는 “목판은 한번씩 먹물로 찍어 보라고 용이하고 수명도 길어진다”고 말한다.

그는 지난 63년 4월부터 5년간 아버지와 함께 30여 명이 해인사 소장 팔만대장경판 6천7백여권을 13집이나 찍는 고된 작업을 거쳐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때 만든 책들은 현재 국회도서관, 동국대, 성균관대, 동아대, 중동중고등학교, 일본의 사천왕사, 비산사, 고안산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을 비롯 영국, 호주, 대만에 전해져 소장돼 있다.

닥종이 수명 1천년 넘어

“말이 13집이지 그건 누구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1천장 정도 찍어야 했으니까요. 너무 힘들어 몇 번이나 알아 놓기도 했지요.” 불심이 없었다면 이 일은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고 말한다. 목체의 힘듦은 물론 한치의 빈틈이 있어도, 조금의 번뇌가 끼어 들어오면 안 되는 숭고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에게는 경판을 찍어내는 것은 번뇌를 떨쳐내는 수행이요, 고행을 이겨내는 기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가 제본한 경전들은 곧 불력의 소산이다. 그의 작업은 마치 외세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팔만대장경을 만든 고대인들의 간절한 마음 바로 그것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그에게 있어 경전을 제본하는 것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삼독에 찌든 혼탁한 마음을 정화시키고 해탈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아가는 구도의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그가 한장본을 만드는데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두 가지다. 실과 종이 가 바로 그것인데, 그중에서 실은 직접 만든다. 염분과 염료를 혼합한 물에 백실을 담갔다가 30분 정도 삶는다. 종이는 당연히 전통한지인 닥종이만 사용한다. 예로부터 종이 천 년, 비단 오백 년이라 했다. 한지에 쓴 글씨와 그림은 1천 년이 넘도록 고스

란히 살아 숨쉬는데 비해, 양지는 1백 년을 채우기가 힘들다. 현존하는 신라 최고(最古)의 사경인 <대방광불화엄경>도 종이에 쓴 것이지만 1천2백40여 년의 수명을 누리고 있다. 전통한지는 수천 년에 걸쳐 우리 문화를 감싸준 은이요 그릇이었던 것이다.

30년 손 거쳐야 1권 완성

김창본 거사의 한지에 대한 예찬은 끝이 없다. 정통적인 방법으로 불심을 불어넣지 않는다면 한장본들은 생명력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양지와는 달리 닥종이는 기계를 사용하는 제본이 어려워 수작업을 하지 않고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불심과 정성을 담지 않으면 한날 손장난에 불과할 뿐입니다.”

경전 한장본을 만드는 일은 일일이 손이 가는 어려운 작업이다. 손끝을 통해 빛어지는 이 작업은 경전 1권을 완성하는 데 30년의 손을 거쳐야 할 정도로 복잡하다. 숙련된 한 사람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양은 10권 안팎이다.

현재 이 작업들은 주로 주문으로 이뤄진다. 주문의 용도는 대부분 승가대(강원) 교재나 복장유물용이다. 요즘은 며칠에 한번 정도밖에 제본을 하지 못하지만 한 번도 이 일을 후회해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내가 만든 경전을 수지독송한 훌륭한 불재자들이 많이 나와 이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이러한 원력으로 공부하는 불자들이 있다면 손이 닳아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세상사를 뒤로 한 채 경전 만드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평생 이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김창본 거사. 방배위 경관을 찍어내고 제본을 한 지 40년. 하지만 아직도 작업장에 들어갈 때면 두렵다고 말한다. 불법이 담긴 경전이기 때문이다.

요즘 김창본 거사에게는 고민이 생겼다. 2대째 해오고 있는 이 일이 머잖아 끊길 처지에 놓인 것이다. 생계를 꾸려 가기 힘들다 하여 아무도 탐탁치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들 정표(35)에게 한 가닥 희망을 걸어 보지만 쉽지 않다.

김창본 거사에게 남은 희망이 있다면 자신의 손까지 대를림해 줄 수 있는 후계자를 키우는 일이다.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원해 본다.

글=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 완성된 <화엄경> 1집(80권)의 높이가 어른키만하다. 숙련된 한사람의 1주일 작업 분량이다.

신기발 숙면, 쾌변 그리고 기...
장안 화계 목판 실용인간 행복 출판(20-003948)
황토 들침대 경용 들침대 탄생!!

국내 및 국제 특이출판
100% 상급 목재
목판 902

딱딱한 들침대를 들침대로...
2Way Bed... 들침대로! 들침대로!
들침대 만들기 10년. 원대기 전지파 제거 가능
갖고 있는 세계 유일인 특허등록 0157651호(제품)

들침대와 황토들침대의 효능...

- ◆ **봄(목)**에 불을 난열면 냉면 백대야차고 ...정말 들침대가 필요할때
- ◆ **여름에 새면바다 축축하고 눅눅한 날(가)**에 ... 황토들침대로 시원하게
- ◆ **추위를 받듯하게** 고정해 줍니다.
- ◆ **몸속 깊숙히** 원치외선이 전달됩니다.
- ◆ **구석구석 피가** 돌게 하고, 쌓여있는 노폐물을 빼 줍니다.
- ◆ **물레에서 원치외선**, 음이온이 쏟아져 배기는 느낌이 없습니다.
- ◆ **환상의 나라 황토들침대** 음이온 원치외선을 쬐십시오!!
- ◆ **조장파 시스템으로** 몸속 깊숙히 똥똥을 풀어줍니다.
- ◆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수백을 차단하였습니다.
- ◆ **황토 A/S로** 연성하고 대를 돌려 볼 수 있습니다.
- ◆ **한달 전기로**는 1000원 연회비 10시간 사용 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2인용)

★ 원치외선의 풍부함을 온가족이 맛 볼 수 있는 기회!
원치외선 황토들침대로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전국 무료 배송!

도움말 2호
氣 리빙스톤 (옥스톤)

본사·A/S : (02)424-9427 직영점: 0333)618-7773